

“ 다(多)가치포럼 3차 토론회 ”

# 이주청년의 시선으로 본 평화와 공생

▶ YouTube '구로문화재단' 채널  
\*본 포럼은 유튜브 생중계로 진행됩니다.

평화 平和  
평온하고  
화목함

세계 시민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평화

발표 김중대(리제너레이션무브먼트 대표)

토론 신재원(중화권 매체 칼럼니스트)

이주민과 탈분단의 창조적 접점 찾기

발표 박동찬(이주인권 활동가)

토론 김리향(서울대학교 사회학과 석사 수료)

2021. 11. 12. (금) 14시 서울온드림교육센터







## 목 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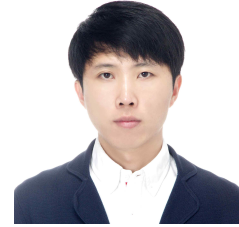
<b>01 인 사</b>	<b>07</b>
최현호, 다(多)가치포럼 운영위원	08
장경률, 중국연변일보 논설위원	09
<b>02 행사순서</b>	<b>11</b>
<b>03 주제발표</b>	<b>13</b>
김종대, 리제너레이션무브먼트 대표	15
박동찬, 이주인권 활동가	23
<b>04 주제토론</b>	<b>33</b>
신재원, 중화권 매체 칼럼니스트	34
김리향,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석사 수료	43



01 |  
2021 다(多)가치포럼  
제3차 토론회  
인사말

개회사  
최현호  
다가치포럼  
운영위원

2021년 11월 1일부터 한국 정부의 워드 코로나 방역정책으로 코로나 사태 이후 비교적 긍정적인 시그널로 인식이 됩니다. 이에 힘입어 3차 '다(多)가치 포럼'을 개최하게 되었으며 구로문화재단과 서울서남권글로벌센터의 많은 지원에 고개 숙여 감사드리며 또한 동포사회를 위하여 헌신하시는 활동가들과 이에 관심을 가져주신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 올리고 싶습니다.



저 또한 한국에서 생활하고 있는 중국 동포 MZ세대의 일원으로서 현실적으로 우선 우리가 살고 있는 한국 사회에서 출신 불문하고 서로가 가지고 있는 문화, 언어, 가치관 등을 인정하고 포용하는 사회 즉 공생 사회를 구축하여야 하며 더 나아가서 한반도의 평화통일을 일구어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따라서 저의 서울에서 북한을 통과하여 고향 연변까지 운전하여 가는 마지막 꿈도 언젠가는 이루어지기를 기원합니다.

이주민 사회가 한국 사회와의 공생의 길로 나아가려면 이주 청년 집단의 활동적이고 건설적인 역할이 가장 중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올바른 방향으로 지속적인 '마찰'로 생각의 차이를 좁혀 긍정적인 공동체 달성하리라 굳게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리제너레이션 무브먼트 공동대표 김종대 대표님과 이주 인권 활동가 박동찬 선생님을 모시고 또 관심 있게 참여하신 모든 분들과 함께 의미 있는 토론회를 개최하게 되어 영광입니다. 항상 여러분의 한마디 한마디 조언이 '다가치 포럼' 성장을 할 수 있는 원동력입니다! 감사합니다.

2021년 11월  
다(多)가치포럼 운영위원 최 현 호



축 사  
장경률  
중국연변일보  
논설위원

존경하는 다가치포럼 김정룡 대표님, 그리고 다가치포럼 토론회에 참석하신 여러분, 이렇게 좋은 자리에서 뵙게 되어 매우 기쁩니다.



오늘 우리는 서울온드림교육센터에서 아주 뜻깊은 토론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토론회는 매우 현실적이고 중대한 과제라고 사료됩니다.

평화와 공생, 이는 인류사회의 영원한 주제입니다. 물론 시대와 지역에 따라 그 주제와 내용이 다를 수 있겠지만 그 기본 함의는 항상 일치합니다. 오늘 이번 토론회에서 그 주제가 이주청년의 시선으로 본 ‘평화와 공생’입니다.

‘이주청년’들은 그 어느 시대 그 어느 지역의 청년들과는 남다른 개척정신이 강하고 창의력도 드세고 그 어떤 역경도 천신만고도 이겨내는 그런 강인한 집단입니다. 우리 말로 말하자면 삼복염천에 돌 위에 올려놓아도 살아남는 뗏고리 같은 그런 ‘뗏고리 정신’의 소유자들입니다.

하기에 자아고민과 자아갈등 및 심리적인 압박감도 남다르다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강렬한 인생세파에 이겨낸 세대들이기에 자못 귀중한 세대입니다. 이런 점에서 오늘의 토론회는 더욱 깊이 있고 실천적인 가치가 있다고 보아집니다.

청년은 순발력이 있고 역동적인 존재입니다. 오늘 포럼에서 발제와 토론이 아주 순발력이 있고 역동적으로 의미 깊게 진행되리라 믿어마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년 11월

중국 연변일보 논설위원·중한삼강포럼공동대표 장 경 루



02

2021 다(多)가치포럼  
제3차 토론회  
행사순서

# 2021 다(多)가치포럼 제3차 토론회 행사순서

시 간	내 용
13:30 - 14:00	참석자 등록
14:00 - 14:05	개회 및 사회자 인사
14:05 - 14:20	인사말
14:20 - 14:30	포럼안내 및 단체사진 촬영
14:30 - 15:30	주제발표
15:30 - 16:30	주제토론 및 질의응답
16:30 -	폐회

- **개회사** 최현호 (다가치포럼 운영위원)
- **축사** 윤건영 (구로구을 국회의원)  
박동웅 (구로구의회 의장)
- **좌장** 전춘화 (홍익대학교 상경학부 교수)
- **발제** 김종대 (리제너레이션무브먼트 대표)  
박동찬 (이주인권활동가)
- **토론** 신재원 (중화권 매체 칼럼니스트)  
김리향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석사 수료)

03

2021 다(多)가치포럼  
제3차 토론회  
주제발표



---

# 세계 시민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평화

---

**김종대**

리제너레이션 무브먼트 대표

## 시대정신으로써의 세계 시민성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마다 그 흐름을 대표하는 ‘시대정신’이 있습니다. 시대정신은 사람들로 하여금 어떠한 하나의 커다란 소명의식과 목적, 삶의 의미를 부여하며 연대를 가능케 하는 원동력이 되기도 합니다. 20세기 초반을 살아가는 한국인에게 시대정신은 ‘독립’이었습니다. 일제 치하에 놓인 조국의 상황 속 독립을 향한 열망은 한반도 안뿐 아니라 한반도 밖에서 한인들로 하여금 삶을 바치고 연대하게 하였습니다. 전쟁의 폐허 가운데 자식들에게 더 나은 미래를 물려주고 싶은 조부모님 세대는 ‘산업화’라는 목표를 위해 희생하며 헌신하였습니다. 7~80년대에 선배들은 ‘민주화’라는 시대정신의 깃발을 올려 들고 마침내 쟁취하였습니다. 90-2000년대에는 ‘정보화’라는 뜻대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세대의 시대정신은 무엇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저는 ‘세계시민 정신’과 ‘환대’라고 생각합니다. 그 어느 때보다 우리는 세계화로 연결된 세상을 살아가고 있으며, 우리가 속한 사회도 갈수록 다원화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는 앞으로 더욱 가속화되어가는 추세입니다. 국제이주기구의 표현대로 이 시대는 전 세계 1/7이 이주자인 ‘이주의 시대’입니다. 우리는 현저히 국가 간, 경계 간의 이동이 잦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환경문제 또는 핵 개발과 같이 우리가 현재 맞닥뜨리는 문제들은 세계가 반드시 함께 머리를 맞대어야 하는 문제들입니다. ‘Global problems require global solutions’라는 말과 같이, 이제는 세계가 연대하지 않으면 인류의 존속을 보장할 수 없는 지경까지 왔습니다.

이러한 흐름 속 인류는 크게 양 갈림길 앞에 서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갈림길은 나와 다른 이들을 구분 짓고 담을 쌓아 각자도생의 길로 가는 길이며, 둘째는 나와 다른 이들과 평화적으로 공존하고 적극적으로 삶을 공유하며 환대하며 살아가는 길입니다. 첫 번째 경우는 국제정치를 보더라도 많이 발견되는 징후라고 생각합니다. 미국의 트럼프 전 대통령은 백인우월주의, 반이민, 반난민주의 등을 자극해 정치기반을 마련하기도 하고, 영국은 EU에서 탈퇴하며, 중국의 공산당 또한 갈수록 과격하며 소수민족을 탄압하는 국수주의의 모습을 보입니다. 첫 번째 갈림길이 조금 더 본능적이고 직관적으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결국 선택해야 할 방향은 두 번째 방향, 다양한 구성원들과 함께 평화로운 공존과 환대의 공동체를 만들어나가는 방향이라고 믿습니다. 이것이 길게 보았을 때 인류가 살아남는 길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는 ‘세계시민 정신’이 바탕이 될 때 가능한 일입니다.



## 세계시민 정신과 디아스포라적 정체성

세계시민 정신에 대한 이러한 희망을 바탕으로 저는 현재 조지아 애틀랜타 인근 클락스톤이라는 작은 미국 마을에서 리제너레이션무브먼트라는 비영리단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클락스톤은 인구가 약 1만 명 정도, 면적은 1제곱마일 정도밖에 되지 않는 곳이지만 매우 다채롭고 흥미진진한 곳입니다. 그 이유는 인구의 약 절반 이상이 동남아시아,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중동 등 전 세계에서 미국으로 재정착한 난민 출신이라는 이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의도 3분의 1 면적의 이 작은 마을에서 매일 들려오는 언어는 60가지 이상입니다.

이와 같은 특성 때문에 저는 이곳을 ‘세계 시민의 요람’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저희는 이곳에서 주로 난민과 이민자 출신 고등학생들에게 가치관 교육인 평화, 세계시민 교육과 더불어 실질적으로 대학 입시를 돕기 위해 미국의 대학시험인 SAT 학원, 그리고 대학 입시 멘토링 서비스를 모두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디아스포라’라는 단어는 본래 바빌론 유수 이후 고향으로부터 타지로 흩어진 유대민족을 지칭하는 단어였습니다. 현재에는 보다 포괄적인 의미로 고국을 떠나 흩어져 살아가고 있는 여러 민족들을 지칭할 수 있는 단어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고향을 떠나 사는 상황으로 인해 전 세계의 디아스포라들에는 몇 가지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로는 소수성 (marginality), 둘째로는 다중정체성 (multi-identities)입니다. 주로 주류 문화에 외부인으로 편입되어 살아가기에 소수자의 경험을 하는 이들이 디아스포라이고, 또한 향토 문화와 본토 문화 등 여러 문화를 옮겨 다니며 살아가는 이들 또한 디아스포라입니다. 하지만 이는 두 문화를 넘나들며 다리를 놓을 수 있는 능력이 될 수 있으며 이는 더욱 글로벌화 되어 가고 있는 이 시대에 피스메이커로 역할을 다할 수 있는 중요한 자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디아스포라의 특수성은 매우 고통스러울 수도 있지만, 또한 세계 시민성으로 승화될 수 있을 수 있다고 믿습니다. 소수자로서의 경험, 다중 정체성은 그만큼 세상을 바라보고 타인을 이해할 수 있는 폭을 넓힐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듯이 두 문화 간의 다리를 놓을 수 있고 또한 다양한 이들과 연대할 수 있는 감수성을 지니게 하는 정체성이 ‘디아스포라적 정체성’이라고 생각합니다.

디아스포라들은 이처럼 다양성을 품고 이해를 할 수 있는, 그래서 현재 다원적인 우리 사회, 또 그 다원성으로 인해 갈등과 폭력이 난무하는 사회 속 서로를 이해하고 평화를 더불어 만들어 나갈 수 있는 세계 시민적 가능성을 지닌 이들이라고 생각합니다.

### ‘세계시민 HAIDI’

그렇다면 ‘세계시민 정신’이란 구체적으로 어떤 가치를 내포하고 있을까요? 여러 정의가 있을 수 있겠지만, 저는 학생들을 가르치며 ‘세계시민 HAIDI’라는 모델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여기에는 다섯 가지 요소가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다섯 요소가 세계 시민성을 매우 잘 표현한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로는 H, human race입니다. 세계시민이란 국가적, 종교적, 인종적, 사회적, 경제적 정체성 이전에 가장 우선적으로 나와 똑같은 human race로 상대를 인지하는 시각입니다. 저는 세계시민 정신이란 이러한 인류애를 바탕으로 상대를 나와 동일한 인간으로 존중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는 A, action입니다. Taking action. 가만히 수동적으로 있는 것이 아닌,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을 찾아서 그게 매우 사소하다 할지라도 직접 행동 하는 것입니다. 저희 할아버지께서는 늘 제게 해주신 말씀이 있는데, 그것은 늘 망원경과 현미경을 함께 가지고 다녀야 한다는 것입니다. 망원경으로 늘 숲을 넓게 바라보는 시각과 현미경으로 당장 앞에 있는 나무를 바라보는 두 가지의 시선을 함께 조화시켜야 한다는 말입니다. 저희 학생을 가르칠 때도 저는 ‘glocal’이라는 개념을 늘 강조합니다. 이는 ‘global’과 ‘local’의 조합어입니다. ‘Think globally, act locally’라는 말이 있습니다. 글로벌한 사고를 하며 지역적인 행동을 하라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 플라스틱 쓰레기로 인한 지구의 오염 문제는 글로벌한 문제입니다. 이를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행동은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거나 분리수거를 열심히 하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시민의 두 번째 덕목은 능동적으로 내가 있는 곳에서 할 수 있는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I, interconnected입니다. 이는 상호연결성을 뜻하며, 나와 타자가 분리된 것이 아닌 매우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인지입니다. 우리는 이미 인지하든 인지하지 못하든, 세계화로 인해 지구 반대편의 형제자매와 밀접하게 연결되어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가령 우리가 오늘 마신 커피 속에는 지구 반대편 중남미 혹은 아프

리카 등지의 이름 모를 커피 농부의 땀과 노력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로 인해 내가 이곳에서 커피를 사 먹는 사소한 행위는 이미 글로벌한 행동이며, 타지의 농부, 유통업자 등의 삶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리고 워싱턴에서 정책을 만드는 미국인들의 행위는 한반도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이러한 상호연결성으로 인해 글로벌과 로컬의 경계가 허물어진 삶을 우리는 이미 살아가고 있고, 그래서 종교철학자 강남순 교수는 ‘think globally, act locally’에서 더 나아가 ‘think glocally, act glocally’ 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네 번째는 D, diversity입니다. 다양성을 포용하며 존중하는 자세를 뜻합니다. 말씀드렸듯 우리는 이미 다원화된, 그리고 더욱 다원화되어가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단일민족사회라는 가정도 깨진 지 오래입니다. 이러한 다양성이 차별과 혐오로 소비되는 안타까운 현상을 늘 목격하게 되지만, 사실 다양성이야말로 한 사회를 풍성하고 부강하게 만드는 원동력입니다. 이는 자연 세계에서도 증명된 사실이며, 생태학자인 최재천 교수는 “자연은 순수를 혐오한다”고 선언하며, “이 세상은 손잡은 놈들이 미처 손 안 잡은 놈들을 이기고 살아남은 세상이다”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동안 당연하게 자연 세계를 지배하는 원칙은 ‘적자생존’이라고 생각해왔는데, 실제로는 그 반대의 원칙이 더 넓은 관점에서 지배하고 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양성에 대한 포용과 존중은 단순히 도덕적인 차원을 넘어 생존적인 차원에서 필요한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I, injustice입니다. 어찌 보면 taking action과 비슷한 맥락일 수 있는데, 세계시민 정신은 불의를 보면 그것을 지나치지 않는 것입니다.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목사는 “injustice anywhere is a threat to justice everywhere”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그 어디든 불의가 조금이라도 존재한다면, 그것은 모든 곳의 정의를 위협하는 요소가 될 수밖에 없다는 말입니다. 저는 이 말이 앞서 말한 모든 것을 함축한다고 생각합니다. 평화와 정의를 사랑하는 세계시민은 그렇기에 국가와 인종의 경계를 뛰어넘어 불의를 발견한다면 본인이 있는 곳에서 할 수 있는 행동을 취합니다. 미얀마에서 쿠데타가 일어났을 때 대한민국에서는 정말 많은 이들이 함께 분노했고 여전히 미얀마의 민주화를 위해 많은 성원을 보냅니다. 단순히 타국에서 타국민들에 일어나는 일이 아닌, 보편적인 인류애적 시각에서 나와 같은 동일한 인간이자 시민이 권력에 의해 어떻게 잔인하게 탄압되는지를 보고 분노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군사정권의 압제 속 민주화를 위해 분투하는 미얀마 시민들의 모습 속 우리의 아픈 과거가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제가 활동하는 ‘코리아피스나우네트워크’에는 이러한 세계시민 정신으로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 미국에서 함께 힘을 모으는 미국인들이 많이 속해있습니다. 한인이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반도 평화에 관심을 쏟고 이를 위한 움직임에 동참하는 이들의 활동에 많은 힘을 받습니다.

## 세계 시민들의 참여로 이루어지는 한반도 평화

세계시민 정신은 보편성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화’라는 보편적인 주제를 통해서 통일의 논리를 세워간다면 더욱더 많은 세계 시민들의 참여를 끌어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저희 할아버지이신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미국에서의 활동을 예로 들고 싶습니다. 할아버지께서 80년대에 군사정권에서 사형을 면할 수 있었던 큰 이유는 바로 ‘인권’에 입각하여 행동한 수많은 세계 시민들의 지원 덕분이었습니다. 특히 유럽과 일본, 미국 등지에서 할아버지의 구명운동이 일어났고, 이것이 외교적인 압력으로까지 이어지자 전두환 정권은 할아버지의 사형을 집행하지 못하고, 대신 미국으로 망명을 보내는 결정을 하였습니다.

미국에 도착해서 할아버지와 아버지는 국내 민주화를 위해 국제적 연대의 노력을 기울이셨습니다. 활동의 발판이 되는 단체의 이름을 ‘재미한국인권문제연구소’라고 지으며, 한국의 군사독재와 민주화의 이슈를 ‘인권’이라는 인류 보편의 가치로 승화시켜 세계 시민들에게 호소하였습니다. 패리스 하비 목사, 에드워드 케네디 상원의원 등 미국의 교육계, 교계, 정계 등의 인사들이 특히 큰 힘이 되었고, 미국인뿐 아니라 함께 망명 중이었던 필리핀의 베니그노 아키노, 그리고 유럽의 인사들과 편지로 교류하며 최대한 많은 세계 시민들을 한국의 인권 문제와 민주화를 위한 투쟁에 동참시킬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미국 의회를 설득하며 외교적인 압력을 넣었습니다. 분명 대한민국의 민주화에는 이러한 세계 시민들의 연대도 무시할 수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민주화를 위한 이들의 역할이 컸듯, 마찬가지로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위해 해외의 한인들과 세계 시민들의 연대가 매우 중요하다고 믿습니다. 서로 다른 상황에 놓인 이들이 연대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공감’입니다. 얼핏 보면 접점이 많이 없는 것 같아 보여도, 세계시민 정신은 이 접점을 만들어내는 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인류 보편의 가치인 ‘인권’이 세계 시민들의 공감을 끌어낼 수 있었듯, ‘평화’ 또한 많은 세계

시민들의 공감과 동참을 끌어내 마침내 이루게 될 한반도 평화를 꿈꿔봅니다.

## 세계 시민적 통일관

한반도 통일이란 매우 큰 화두입니다. 그리고 이 화두는 한반도의 테두리를 훌쩍 뛰어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저는 세계 시민적 통일관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는 말처럼, ‘동질성의 회복’에 초점이 맞추어진 것이 아닌, 완전히 ‘새로운 정체성의 탄생’에 맞추어진 통일관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통일을 통해 한반도 안에서 우리 민족이 다시금 부흥하고 국가경쟁력을 끌어올려 강국으로 도래하겠다는 것이 아닌, 목적성을 더욱 확장해 우리의 평화를 통해 주변 국가들에 그 평화의 열매를 나누고 모든 세계시민을 위한 통일을 진정한 목적으로 삼는 목표의 재설정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현재 시대가 필요로 하는 세계 시민적 통일관이라 생각합니다. 이러한 세계 시민적, 보편적 가치를 실현하는 국가가 돼야 하므로 통일이 필요한 것입니다.

현재 남과 북은 세월을 통해 너무나도 다른 모습으로 존재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이렇게나 다르기 때문에 남과 북이 평화를 이루고 하나가 되고 화해의 씨앗을 뿌리게 된다면 그 파급력과 충격은 한반도를 훌쩍 뛰어넘는 선한 영향력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것이 21세기에 통일을 향한 우리의 소명 의식이고 시대정신이며, 세계시민 정신으로 가능케 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끝으로 할아버지께서 남기신 말씀을 공유하고 싶습니다. “한국은 지리적으로 작은 나라이지만 지정학적으로는 굉장히 크고 중요한 나라이다.” 한반도가 지금까지 ‘지정학적 저주’로 인해 어려운 역사를 겪었지만, 또한 이것이 ‘지정학적 축복’으로 변화할 수 있는 큰 원동력이 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이 저주가 축복으로 변화할 수 있게 되는 열쇠는 조금 더 넓은 우리의 통일관, 단순히 민족만을 담는 것이 아닌, 인류애를 담는 통일관이 그 씨앗이 된다고 믿습니다.



---

# 이주민과 탈분단의 창조적 접점 찾기

---

**박동찬**  
이주인권활동가

## 들어가며: 왜 ‘탈분단’인가?

“평양시민 여러분, 동포 여러분, 우리 민족은 우수합니다. 우리 민족은 강인합니다. 우리 민족은 평화를 사랑합니다. 그리고 우리 민족은 함께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5천 년을 함께 살고 70년을 헤어져 살았습니다. (중략) 김정은 위원장과 나는 북과 남 8천만 겨레의 손을 굳게 잡고 새로운 조국을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우리 함께 새로운 미래로 나아갑시다.”<sup>1)</sup>

2018년 세 번째 남북정상회담을 위하여 평양을 방문한 문재인 대통령이 능라도 경기장에 모인 15만 평양시민들 앞에서 펼친 연설 중의 일부이다. 언뜻 자주적이고 평화 지향적 발화로 읽히지만, 그 가운데는 (의도하지 않은) 소외와 배제의 기제가 작동하고 있다. “5천 년을 함께 살고 70년을 헤어져 살”아온 “우리” 안에는 지난 세기말부터 시작해 현재진행형으로 유입되고 있는 정착 5년 차, 10년 차인 이주민이 함께 할 자리가 없다. “새로운 조국”을 재구성하는 소위 통일 역시 어디까지나 혈통적 동질성을 공유하는 “8천만 겨레”의 몫으로 국한된다.

지나친 국가주의·민족주의 서사의 통일 논의를 지양하는 한편, 200만 이주민이 어떻게 객체가 아닌 주체로서 한국 사회와의 접점을 확대해나갈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이 본고의 출발점이다. 발표 주제 “이주민과 탈분단의 창조적 접점 찾기”에서 언급한 ‘탈분단’은 자국민 중심의 통일/분단 담론을 극복하기 위한 대안적 용어로서 ‘통일’ 대신 사용했다. 또한, 분단을 민족의 비극적 숙명과 국가 간의 사건으로 이해하는 데서 발생하는 ‘체제’와 ‘안보’에 대한 강조, 분단을 재생산하는 역설에서 탈피해 ‘상처’와 ‘사람’의 이야기에 집중해보고 싶은 발표자 의지의 반영이기도 하다.<sup>2)</sup>

## 이주(경계 넘기)와 평화의 상관관계

“1914년 이전에는 대지는 모든 인간의 것이었다. 사람들은 자기가 원하는 곳이면 어디든지 갔고, 원하는 만큼 머무를 수 있었다. 허가도 없었고 비자 같은 것도 없었다. 젊은 사람들에게, 내가 1914년 이전에 인도와 미국을 여행했을 때는 여권이 없었고, 또 그런 것은 도대체 본 적도 없었다고 들려줄 때면, 그들이 신기하다는 듯 놀라는 것을 나는 언제나 재미있어했다.”<sup>3)</sup>

1) 문재인, 「우리 민족은 함께, 살아야 합니다!」, 청와대 홈페이지, 2018.

2) 문아영, 이대훈, 『분단체제를 살아내며 넘나드는 탈분단 평화교육』, 피스모모, 2019. p21.

3) 슈테판 츠바이크 저, 광복록 역, 『어제의 세계』, 지식공작소, 2014.



오스트리아 작가 슈테판 츠바이크의 『어제의 세계』에 나오는 내용이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여권과 비자와 국경은 오랜 전통이 아니고, 모두 근대의 인위적 산물이라는 점이다. 그리고 1914년이라는 분기점에 주목해볼 필요가 있다. 제1차 세계대전 개전의 해로서 사람의 자유로운 이동과 이주를 제약하는 ‘장벽’이 전쟁을 계기로 생겨났다. 거기에 더해 국가시스템에 예속되는 국민으로서의 ‘아’와 ‘비아’, ‘나’와 ‘타자’의 구분 또한 전쟁을 계기로 발현한다.

나와 타자가 구분되는 공간에는 필연적으로 경계가 발생하고, 많은 경우 내적 긴장 관계를 수반한다. 이러한 경계는 단순히 나라와 나라 사이, 혹은 어떤 한 지역을 양분하는, 예컨대 국경선과 같은 실체적 존재만이 아니다. 오늘날 한국 사회에서 그 모순이 첨예하게 드러나고 있는 젠더, 난민, 남북관계, 다문화, 이주민 등 모든 사안에는 눈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계가 존재한다. 그리고 이런 사회적 갈등과 단절은 사회 구성원의 과감한 경계 넘기의 실천으로 극복될 수 있다.

한반도의 근현대사는 ‘이산’을 빼놓고 설명할 수 없다. 일제의 정치적 탄압과 경제적 수탈은 해외로의 망명을 불러왔고, 이와 별개로 강제로 이주당하고 징용당한 사람도 부지기수였다. 동족상잔의 전쟁은 수많은 난민을 양산하였고, 극심한 가난 때문에 아이들이 해외 입양아로 보내졌다. 경제 개발기에는 보릿고개를 넘어보자고 광부와 간호사와 같은 노동력이 해외로 파견되기도 하였다. 이산의 동기는 다양했고 이들이 오늘날 한반도 전체인구의 10%에 달하는 재외동포-코리안 디아스포라로 불리는 사람들이다. 특히 동아시아에 산재한 코리안 디아스포라의 형성은 일제 식민주의 침략을 빼놓고 설명될 수 없다.

전쟁과 같은 평화의 부재는 자유로운 이동을 제약하기도, 비자발적 이주를 양산하기도 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되고 있는 이주 행렬 중의 절대다수는 전쟁과 정치적 박해를 피하기 위한 사람들이다. 수년 동안 진행된 시리아 내전만 하더라도 국외 난민과 국내 실향민을 합친 강제 이주자가 전체인구의 절반인 1,100만 명을 넘어서었다.<sup>4)</sup> 그리고 경제적으로 더 나은 삶을 찾아 떠난 이주민도 일면 자발적으로 보이지만, 그 이면에는 빈곤과 불평등의 구조적 폭력이 작용하고 있다. 전쟁과 폭력, 냉전의 산물인 이주민·디아스포라가 지닌 평화 감수성은 더욱이 각별할 수밖에 없다.

## 분단을 영속시키는 구조적 폭력

4) 조일준, 『이주하는 인간, 호모 미그란스』, 푸른역사, 2016. p411.

분단이 38선을 기준으로 국토만을 가른 게 아니라 사람과 가족과 공동체를 갈랐기에 우리 인식 속에 구조화한 폭력적·배타적 분단 사유를 해체하는 일 또한 더없이 중요하다. 요한 갈통은 폭력을 직접적 폭력과 간접적(구조적) 폭력으로 구분한다. 직접적 폭력이 전쟁, 테러, 학살, 고문처럼 물리력이 동반된 폭력이라면, 간접적 폭력은 눈에 보이는 물리력이 사용되지 않지만, 개인의 삶을 파괴하는 사회의 구조적인 권력 관계까지도 지칭하는 말이다.<sup>5)</sup> 평화 또한 ‘전쟁이나 군사 분쟁 같은 물리적 폭력이 부재한 상태’의 소극적 평화와, 물리적 폭력뿐만 아니라 ‘사회 구조적인 폭력까지 부재한 상태’의 적극적 평화로 구분할 수 있다.<sup>6)</sup>

간접적(구조적) 폭력의 한 양상이자 적극적 평화를 실현하기 위하여 한국 사회가 해결할 당면과제로서 차별과 혐오의 문제를 꼽을 수 있다. 가장 쉽게 차별과 혐오의 표적이 되는 사회적 소수자는 수적 다소로 정의되지 않는다. 코로나19 사태로 잠시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지만, 한국 사회가 대량의 외국인을 흡수하는 이주 목적국이 되었다는 점은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다. 200만 이주민 사회가 결코 작지 않은 인구수로 유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낙인찍기, 비가시화, 정책적 배제 속에서 연명하고 있기에 이들 역시 엄연한 사회적 소수자이다.

‘올여름, 최고의 오락영화!’란 캐치프레이즈를 달고 개봉한 영화 <청년경찰>은 누적 관객 수 565만 명을 기록하면서 공전의 히트를 쳤다. 하지만 “여긴 조선족들만 사는데 여권 없는 중국인도 많아서 밤에 칼부림이 자주 나요. 경찰도 안 들어와요. 웬만하면 밤에 다니지 마세요.”란 영화 속 대사는 조선족과 대림동에 대한 혐오를 증폭시켰다. 한국 영화에서 조선족이 등장한 것은 하루 이틀 일이 아니지만, 소비되는 방식만큼은 일관적이었다. <카운트다운>(2011), <공모자들>(2012), <신세계>(2013), <차이나 블루>(2012)와 <차이나타운>(2015) 등을 거치면서 조선족의 잔혹한 범죄자 캐릭터는 하나의 클리셰가 되었다.

2016년, 모 정당의 대표는 저출산·고령화 문제의 해결책으로 “조선족을 대거 받아 들여야 한다.”고 발언했다. 이어 2019년, 같은 당 또 다른 대표는 “외국인은 한국에 기여가 없으니 임금을 차등해야 한다.”고 주장해 물의를 빚었다. 형편없는 성인자·노동인권 감수성은 별론으로 하고, 이렇게 무책임한 발화가 계속되는 것은 이주민을 향한 한국사회의 이중적 태도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 이주민은 철저히 한국 사회의 필요에 의해 호명되다가도 정치·경제적 여건이 악화할 시에는 그것을 타개하기 위

5) 이용석, 『평화는 처음이라』, 빨간소금, 2021. p19.

6) 이용석, 위의 책. p19.

한 수단으로 그들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한다.

구조적 폭력의 근원을 깊이 파고들면 한국 사회에 70년 넘도록 강고하게 자리 튼 분단체제의 그림자를 확인할 수 있다. 조선족이 일상적으로 겪는 혐오도 중층적이다. 단순히 '가난한 동포'를 넘어 사회주의 국가 출신, 이북을 도와 통일을 훼방 놓은 '원흉'이라는 또 다른 프레임이 차별 기제를 대폭 증강한다. 그런 점에서 오랜 군사독재 가운데 형성된 한국 사회의 반공 이데올로기와 냉전체제를 하루빨리 해체하는 것보다 시급한 일도 없을 테다.

또한, 평화로운 일상을 파괴하는 구조적 폭력은 단순히 한국에 들어온 중국동포만을 향하지도 않는다. 세상의 모든 이주민은 그들의 정착지에서 그다지 환대를 받지 못하는 게 현실이다. 일본에서는 재특회를 비롯한 극우세력들이 지금도 혐한시위를 지속하고 있는데 그들의 주된 표적은 재일조선인이다. 그중에서도 일본의 조선학교는 극우세력의 위해와 정부의 정책적 배제라는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다. 연해주에 살던 고려인들은 스탈린에 의해 1937년 중앙아시아 지역으로 강제이주를 당했는데 이유인즉 스탈린이 이들을 일본 간첩으로 의심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디아스포라의 원조 격인 유대인이 나치에 의한 홀로코스트의 참극을 겪었다는 사실도 익히 알고 있다. 사실 멀리 볼 것도 없이 코로나가 창궐한 오늘, 서구 곳곳에서는 동양인에 대한 혐오가 비일비재로 발생하고 있다.

“저는 연세대에 다니는 조선족 유학생입니다. 이틀 뒤에 조선족 유모가 아이를 납치하는 영화 <미씹>이 상영된다고 들었습니다. 솔직히 많은 얘기를 하고 싶지만 여기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려 합니다. 올바른 판단을 하시고 정확한 표현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놈이 무식하고 억세다.’가 맞는 표현이지 ‘경상도 사람은 무식하고 억세다.’가 아니지요. 또한 ‘외국에서 제일 문란하게 노는 걸 보면 하나같이 다 한국인이야.’가 아니라 ‘그 애와 그의 무리가 외국에서 문란하게 놀았어.’입니다. 마찬가지로 ‘조선족이 살인했다.’가 아니라 ‘그놈이 살인했다.’가 맞는 표현입니다.”<sup>7)</sup>

오래전 페이스북 대나무숲에서 익명의 조선족 유학생이 쓴 글을 보았다. 이러한 일련의 사례는 요즘에도 널려 있다. 2020년 5월 25일, 미국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에서 경찰의 과잉진압으로 비무장 상태의 흑인 남성 조지 플로이드가 사망했다. 흑인에 대한 인종차별에서 확인할 수 있는 한 가지 맥락은 백인이 잘못하면 사람의 문제지만 흑인이 범죄를 저지르면 집단의 문제로 환원한다는 사실이다. 또 국내 같은

7) 익명 네티즌, 페이스북 연세대학교 대나무숲, 2016.

경우 작년에 이태원에서 코로나 집단감염이 터지면서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가 만연했다. 흑인이 겪는 인종차별과 비슷한 맥락에서 이성애자가 성폭행을 저지르면 그 인간이 죽일 놈이지만, 동성애자가 강간을 하면 ‘그 집단’의 본질적인 특징으로 인식된다.

타자 집단을 일괄해서 그 집단의 성격을 규정해 버리는 것이 인종주의의 특징이다. 빈도와 강도의 차이일 뿐 사람마다 차별심리를 내재하고 있다. 단지 전쟁, 테러 등 가시적 폭력에 대한 반대를 넘어 빈곤, 차별, 혐오의 구조적 폭력을 해결할 때라야 우리는 진정한 의미에서의 평화를 공유할 수 있다.

### 재외동포와 탈분단의 접점 찾기

식민지시기 일본으로 건너가 그곳에 정주한 재일조선인은 그들의 발화 가운데 조선말, 조선사람, 조선학교, 조선 민족 등 ‘조선’이란 표현을 자주 동원하는데 여기에는 항상 오해가 따라다닌다. 남북 분단과 정권의 분립으로 ‘조선’이 한국에서는 좋지 않은 뉘앙스로 읽힌 지 오래지만, ‘조선적’에서 ‘조선’은 ‘지역의 총칭’이지 특정 국가(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DPRK)를 지시하는 것이 아니다.<sup>8)</sup> 그리고 지금까지도 “한 국가에 귀속되고 싶지 않다”, “처음부터 조선적이었다”, “통일 조국을 바란다” 등의 이유로 조선적을 유지하는 사람이 일부 남아있다.

이들은 일종의 과거의 고향·상상의 고향으로서 분단되기 이전의 조선반도나 앞으로 다시 하나 될 조국을 상정하고 있다. “조선이 ‘둘’로 분단된 후에도 재일조선인은 ‘하나’였고, 지리적인 군사경계선이 없는 분단되지 않은 사람들이다.”<sup>10)</sup> 하지만 그 상상속의 조국을 파괴하는 일에, 일본과 더불어 한국도 한몫했다는 사실은 통탄할 일이다. 이북과의 체제경쟁 가운데 우월한 체제란 미명으로 그들에게 ‘대한민국’ 국적 변경을 요구해왔다. ‘국가’라는 울타리에 다시 그들을 포섭하려고 했다.

그동안 한국 미디어는 ‘우스꽝스러운’ 억양 모방을 통해 조선족을 희화화의 대상으로 삼아왔다. 이러한 재현의 문제성은 차치하고, 조선족을 획일적 집단으로 상정하는 데서 우리의 사유의 한계도 고스란히 드러난다. 압록강과 두만강을 넘어 만주로 간 유민 중에는 조선팔도 출신이 골고루 망라되었는데 이들은 출신별로 집성촌을 형성해 살아갔다. 그런고로 조선족은 경상도, 전라도, 함경도, 평안도, 충청도 등 한반도 전역의 말씨와 전통을 대대로 대물림해왔다. 한마디로 조선족은 언어적으로, 문화적으로

8) 나카무라 일성 저, 정기문 역, 『사상으로서의 조선적』, 보고서, 2020. p13.

9) 나카무라 일성 저, 정기문 역, 위의 책. p15.

10) 서경식 저, 형진의 역, 『역사의 증인, 재일조선인』, 반비, 2012, p12.

‘분단되지 않은 공동체’였다.

재외동포의 역사는 남과 북 사이 어느 한쪽과 독점적으로 혹은 배타적으로 교류해 온 역사가 아니다. 남북의 길항을 안타까워하는 한편 그것을 극복하기 위한 통섭적 사고를 끊임없이 강구해왔다. 그리고 오늘날 세계에 산재한 코리안 디아스포라는 휴전선의 속박을 받지 않고 남북을 자유롭게 출입·왕래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고 있다. 남과 북 양쪽 모두와 교류해보고, 교류하고 있는 경험 중에 배태된 것은 남북을 아우르기도 하고, 뛰어넘기도 하는 제3의 시선이다.

한반도는 지정학적 가치가 매우 큰 공간이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한반도는 외세와 제국주의의 각축장으로 전략했던 가슴 아픈 역사를 갖고 있다. 제2차 세계대전의 결과로서 전범국 독일이 전승국 미국과 소련에 의해 동서로 분단되고 점령당했지만, 동아시아에서는 억울하게도 전범국 일본 대신 그 피해자였던 한반도가 남북으로 분단됐다. 주변 강대국의 국제정치적·군사적 필요 때문에 발생한 분단이 지금까지 지속되고 있다는 것은 주변국의 입김이 한반도 분단문제에 있어서 여전히 무시할 수 없는 변수임을 말해주고 있다.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은 원심력과 구심력의 개념으로 이를 설명해낸다. 미국, 중국, 일본 등 한반도 분단/통일문제의 이해 당사국들은 국제정세의 변동과 자국의 필요에 따라 가변적인 입장이나 정책을 취할 수밖에 없다. 이는 현재의 분단·휴전 상태 유지는 물론 심지어 통일을 반대할 가능성도 내포하고 있는 ‘통일의 원심력’이라고 규정할 수 있다. 이에 반해 남북 간에 서로 뭉치려는 생각, 남북 간에 왕래하고 교류하고 협력하려는 입장이나 노력은 ‘통일의 구심력’이라고 규정할 수 있다.<sup>11)</sup>

통일의 원심력과 구심력의 상호관계에서 원심력이 구심력보다 크면 결국 분단이 지속되고, 반대의 상황이 되면 통일이 되는 것이다.<sup>12)</sup> 즉 통일의 구심력을 키우고 원심력을 약화하는 방법이 한반도 평화통일의 지름길이다. 통일 구심력을 확대하는 방법으로 남북 정부 간의 화해와 협력, 민간 교류 활성화를 꼽는다면 원심력의 극복에는 재외동포의 역할을 간과할 수 없다.

800만 재외동포의 분포가 지역적으로 광범위하면서도 한반도 문제에 있어서 전략적으로 중요한 4대국인 중국, 미국, 일본, 러시아(구소련 지역)에 90%가량이 거주하

11) 한반도평화포럼, 『통일은 과정이다』, 서해문집, 2015. p48.

12) 한반도평화포럼, 위의 책. p49.

고 있다는 사실은 분명 고무적이다.<sup>13)</sup> 비록 거주국에서 수적으로 적다 하여도 동포사회를 중심으로 평화 호소, 종전 촉구 등 집단적인 메시지를 꾸준히 확산시킴으로써 현지 사회와의 국제연대 또한 기대해봄 직하다. 일례로 미국 상하원에 진출한 한국계 의원들이 한반도 문제에 관한 법안 혹은 결의문을 제출하는 것 역시 방법 중 하나이다. 재외동포 네트워크가 발산할 목소리는 주변국의 여론을 움직여 통일의 원심력을 제어하는 무시 못 할 잠재력을 충분히 갖고 있다.

하지만 조선족과 재외동포를 지렛대로 활용하기 이전에 한국 사회가 먼저 거쳐 가야 할 시험대가 있다. 북·중 접경지역에 자리 잡은 연변을 이제는 한국 안에서도 만날 수 있다. 개방과 자본의 물결에 떠밀려 한국으로 귀환한 조선족들은 서울 가리봉과 대림동에 동포타운을 형성해 살아가고 있다. 숫자로 따지면 조선족 전체인구의 절반에 가까운 80만 명에 달한다. 구소련 지역 출신 고려인 동포와 북한민(북한이탈주민)의 수도 10만 명을 웃도는 것으로 추산된다. 그들의 한국 정착은 쉽지 않다. ‘먼저 온 통일’에 대한 포용이 결여한 가운데 더 큰 통일을 말하는 것은 이율배반으로 볼 수밖에 없지 않은가.

### 나오며: 평화를 매개하는 세계시민으로

김진향 박사는 통일을  $\langle 0.5+0.5=1 \rangle$ 의 수식으로 표현한다.<sup>14)</sup> 분단체제가 잔존하는 우리는 결국 불구의 존재로 살 수밖에 없다는 게 그의 지론이다. 사실 발표자에게도 통일을 고민하면서 얻어낸 수식이 하나 있다.  $\langle 1+1=2 \rangle$ , 너무나 당연한 결론을 한국 사회는 거부해오고 있다. 우리는 그동안  $\langle 1+1=1 \rangle$ ,  $\langle \text{남}+\text{북}=\text{남} \rangle$ 의 도식에 함몰된 것은 아닌지 반성할 필요가 있다.

북의 다름을 일체 부정하고 통일을 곧 체제 이식을 비롯한 총체적 남한화로 상정한다면, 그것은 통일이 아니라 폭력이다. 그리고 이러한 획일화의 폭력은 일차적으로 한국에 유입된 200만 이주민에게 가해지고 있다. 신자유주의와 야수 자본주의로 흥역을 치르고 있는 세계에, 남과 북 체제의 유무상통(有無相通)과 경계를 넘나드는 이주민·재외동포의 경험은 이념과 체제의 상이를 극복하고 구동존이(求同存異)할 수 있는 대안적 모델의 창안으로 이어질 수 있다. 남북의 직접적 연결이 끊어지고 관계가 경색된 국면에서 이주민과 재외동포는 한국 사회에 새로운 상상력을 선물한다.

13) 조사연구부(대표집필 조형재), 『세계를 품은 한인들』, 재외동포재단, 2016. p145.

14) 김진향 저, 차민지, 황지은 역, 『우리, 함께 살 수 있을까?』, 슬로비, 2019.

발표자가 20년 가까이 살다 온 중국 심양(瀋陽)의 풍경을 공유하는 것으로 글을 갈무리하고자 한다. 심양 도심에는 서탑(西塔)이라는 중국에서 가장 큰 코리아타운이 있다. 그런데 이곳에서의 ‘코리아’는 단순히 한국의 전유물이 아니다. 이러저러한 목적으로 중국에 체류 중인 한국인과 더불어 이곳의 토박이 조선족 동포들, 그리고 식당의 종업원으로 일하거나 업무차 파견 나온 북한 사람들이 ‘코리아’ 정체성을 공유하며 살아가고 있다.

북한식당 ‘평양관’ 맞은편에는 ‘청와대’ 간판을 단 한식당이 있다. 또 다른 북한식당 ‘모란관’으로 들어가는 입구 쪽에는 구멍가게가 하나 달렸는데 한국 길거리의 명물인 붕어빵을 굽어내고 있다. 중국의 오성홍기와 태극기, 인민공화국기까지 펼쳐어는 서탑거리지만 사람들은 그 속에서 위화감 따위를 전혀 느끼지 못한다. 누구나 출입의 제한 없이 자유롭게 드나들며 담소를 나누는 공간, 발표자는 여기서 통일의 미래를 오래 보아왔다. 서탑은 “날마다 작은 통일이 이루어지는 기적의 공간”이다.

이주민 정체성 자체에는 상당한 가변성과 유동성을 내포하고 있다. 국민국가의 틀 속에 포섭된 외국인(제3자)으로서의 삶을 계속 영위할 수도 있고, 반대로 남과 북의 화해와 동아시아의 평화를 매개하는 세계시민으로 역할 할 수도 있다. 이러한 반전(反轉)에 가까운 변화는 당사자인 이주민 사회 내부의 냉철한 각성과 더불어 한국사회의 과감한 인식 전환을 요구하고 있다. 한국 사회가 왜곡된 이해와 편견으로부터 결별할 때에 이주민 공동체는 비로소 종속변수에서 벗어나 매개변수 나아가 독립변수로 자리매김할 힘과 용기를 얻게 된다.





04

2021 다(多)가치포럼

제3차 토론회

주제토론

## 토론문

### 신재원(중화권 매체 칼럼니스트)

제2차 세계대전이 발발하기 전 소련은 일본 간첩을 진압하기 위해 러시아 극동에서 중앙아시아로 17만 명이 넘는 중국 동포를 강제 유배시켰다. 유배지는 극도로 건조한 데다가 애초에 사람이 살지 않는 곳이었으며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지 못해 4만명 이상의 동포가 사망하였다. 일제강점기 당시 일제는 만주국 건설이라는 계획하에 동포를 강제 이주시켰고 이때문에 100만 명에 가까운 동포들이 중국 동북으로 강제 이주당해 일본인 보다 훨씬 낮은 임금을 받으며 열등 노동자로 살았다. 한국전쟁때는 수천 수만의 가족이 유랑하게 되었고, 전쟁 전후로 생겨난 수천수만의 한국 고아들의 후손들은 미국으로 건너가 살게되었다. 그리고 당시의 불가피한 이유로 전 세계 각지에 흩어져 지금까지도 그곳에서 살아가는 동포들은 여전히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 민족’의 정체성을 지속하며 살아가고 있다. 대한민국 역사에는 억압과 피해 속에서도 나라의 독립과 민주, 경제, 산업에 큰 기여를 한 다양한 국적의 재외동포들이 있다. 아직도 많은 교포들이 한국을 자신의 뿌리로 생각하며 다양한 방식으로 공헌을 한다. 재외교포들이 이처럼 대한민국을 위해 헌신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많은 교포들은 한반도 땅을 밟아보지 못한 채 태어나고 자랐지만 여전히 한국어와 한민족에 대해 깊은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 그것은 아마도 조국을 잊지 않고자 언어, 문화, 역사 교육을 게을리하지 않았던 앞선 세대의 노력 덕분일 것이다. 이를 기반으로 한국에서 나고 자라지 않았던 동포들도 한국에 대한 소속감과 귀속감을 자연스럽게 느끼게 되는 것이 아닐까 싶다.

이처럼 해외 동포들의 조국에 대한 소속감, 귀속감은 세계 인류의 7분의 1이 이민 인구인 오늘날의 지구촌 사회에서 향후 대한민국이 더욱 개방적이고 건강한 국제화를 이루는데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그렇지만 그전에 앞서 우리가 놓치고 있는 한가지가 있다. 바로 지금 한국에 거주하는 동포들과 외국인들이다. “이제 우리는 대한민국이 더이상 단일민족 사회가 아니라는 것을 인정해야한다”

한민족(한국어를 공통으로 사용하며 한반도를 중심으로 공동의 문화권을 형성하고 있는 아시아계 민족)의 단결과 전 세계 동포들과 함께 대한민국의 민주, 경제, 문화적 기적을 이룩하기 위해서는 우리 국민을 비롯해 현재 한국에 살고 있는 ‘동포 및 외국인’에 대한 고찰이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돌이켜보면 대한민국에선 20년을 주기로 기적이 일어났다. 1960년대 경제5개년 계획을 시작해 1980 아시아 4 용으로 성장한 ‘한강의 기적’. 1970년대 말 독재체제에서 벗어나 1990년대 말 민주화를 이루어낸 ‘정치의 기적’. 1973년 시작된 북방 정책의 추진을 시작으로 1992년 북쪽의 두 공산 국가와 좋은 관계를 수립한 ‘외교의 기적’. 마지막으로 2000년 김대중 정부의 과감한 문화산업 투자로 성장한 k-pop이 2020년이 되어 전세계를 휩쓸게 된 ‘한류의 기적’.

그러나 사실 기적은 순수한 운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다. 기적 속에는 셀수도 없는 사람들의 직간접적인 노력과 고통, 한이 담긴다. 그렇지만 기적이 일어나면 스포트라이트는 소수의 사람에게 돌아가게되어 대다수 사람들의 노력과 고통은 조명을 받지 못한다. 특히 우리와 함께 고통을 나누는 ‘비한국인’ 또는 ‘외국인’에 대한 배려가 소홀한 경우가 많다.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대다수 사람들이 하기 싫어하는 일, 소위 3D로 취급되는 많은 일들을 중국 동포들이 맡아서 한다. 이들중 대부분은 묵묵히 일하며 우리 사회의 일원으로서 자신의 책임을 다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중국 동포의 범법 행위 및 강력범죄가 매체에 보도될때면 모든 중국 동포들이 마치 해당 사건에 연류된 듯 ‘중국 동포’이라는 신분을 가진 모든 사람들을 대상으로 혐오 정서가 만연해진다. 최근 국내에서 2, 3세대에 걸쳐 거주하거나 재외동포로 영주자격을 가진 자의 자녀에게 한국 국적을 부여하는 국적법 개정을 반대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한달동안 30만 명의 동의서가 제출된 것만 보더라도 한국사회가 이 문제에 얼마나 민감한지 느낄 수 있다. 그럼에도 오늘날 한국 1차 산업의 대부분이 중국 동포들과 외국인들의 노동력에 의존하고 있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으며, 오늘도 한국 주식시장은 외국인 수급에 의해 큰 영향을 받고 있다.

2021년 지금, 우리를 기다리는 다음 기적은 무엇일까. 또 오늘을 기점으로 20년 후 기적이 이루어지게끔 하기위해 우리는 오늘 무엇을 해야할까.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는 지구촌 사회 앞에서 우리는 여전히 ‘한민족단결’에 근간해 세상을 바라봐도 될까.

필자는 대한민국 역사에 기록된 모든 기적이 우리 민족만의 공적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국경과 인종, 언어, 문화를 초월하는 초연결 사회에서 ‘한민족과 동포’ 또 ‘한민족과 이방인’으로 철저히 구분지어 생각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문제가 있다. 금융 쓰나미, 전 세계적인 전염병, 초국가적 범죄와 전쟁 속에서 살고있는 지구 시민인 우리가 여전히 집단으로 편을 갈라서 대립한다면 오늘날 우리에게 놓인 수많은 글로벌 문제를 결코 해결할 수 없을 것이다.

과거 우리는 피부색, 언어, 문화를 통해 어느 나라 혹은 어떤 민족에 속하는지를 증명하곤 했다. 바꿔말해, 지금까지 우리는 ‘조국’ 이나 ‘신분’ 이 있어야 비로서 ‘사람’ 으로 인정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도 과연 이와 같이 보수적이고 이분법적인 기준으로 ‘나’를 인정 받는 사회가 펼쳐질까.

필자는 대한민국이 미래로 향한 건강한 성장을 이뤄내기 위해선 단일민족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고, 모든 사람을 평등하게 바라보는 노력을 즉시 시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사람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것이 먼저고, 그 사람의 국적, 신분을 나누는 것이 후행되어야한다. 우리가 우리 사회의 다양한 구성원들을 시작으로 전세계 모든 사람들을 편견없이 바라보고 사람대 사람으로 동등하게 소통할때 비로소 우리는 21세기 지구시민사회의 진정한 일원으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이다.

필자(이하‘나’)는 중국에서 10년 이상 거주하면서 중국 현지인처럼 말할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중국어를 모국어처럼 유창하게 구사하고 현지 문화에 완전히 융화되어 생활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인 신분이라는 이유만으로 나는 여전히 ‘이방인’으로서의 삶을 살았다. 내가 중국에서 ‘이방인’으로 살아간다고 처음 느꼈던 것은 학창 시절 때였다. 학창 시절 한국인 신분을 밝히기 전과 후 친구들이 나를 대하는 데에 차이가 생기는 것을 느꼈던 나는 친구들이 외국인 한정 특별 대우를 하고 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이후 만주족(중국의 소수민족 중 하나) 중국인 친구도 학급에서 나와 같은 ‘이방인’ 취급을 받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똑같은 국적을 가진 중국인 사이에서도 한족이 아니라는 이유로 외국인인 나와 같은 대우를 받는 것을 목격하니, 나를 대하던 태도가 ‘외국인’의 차원이 아닌 ‘우리와는 다른 또 섞일 수 없는 타인’, 즉 이방인의 차원에서 시작된 것이라는 걸 깨닫게 되었다. 나와 내가 아닌 타인을 나누는 기준은 국적, 언어, 심지어 문화가 아닌 ‘순수 혈통’의 여부였다.

<베니딕트 앤더슨 교수의 <상상의 공동체>에서는 “비록 모든 민족 내부에 보편적인 불평등과 착취는 존재할지라도 민족은 항상 끈끈하고 평등한 동지애로 상상된다. 결국 이런 상상의 공동체가 지난 2세기 동안 백만 명의 사람들을 민족을 위해 기꺼이 학살하거나 죽음에 이르게 한 것이다” 라는 문장이 나온다.>

나는 그 후로 나와 같은 이방인이었던 만주족 친구와 친한 친구가 되었다. 우리는 다른 중국 친구들과 피부색으로나, 언어로나 표면적으로 느껴지는 차이점이 없었지만 집단 속에서 언제나 이방인으로 여겨지며 동등한 대접을 받지 못했다. 예를 들어 보통

교실에서 한 학생이 실수를 하면 실수한 학생의 이름을 언급하면서 “누구누구가 그랬다”라고 대답할 것이다. 하지만 나와 친구가 실수할 때면 중국 친구들은 “한국애가 그랬다” 혹은 “만주족애가 그랬다”라는 식으로 말하곤 했다. 이 둘의 차이는 ‘개별’과 ‘집단’에 있다. 이름을 부르는 것은 주체가 개인으로 국한되는 것이지만 개인을 그가 속한 한 집합에 포함시켜 집합체의 이름으로 부르는 것은 완전히 다르다. 처음에는 이와 같은 배척 현상이 이해되지 않았다. 십분 이해해서 국적이 다른 내가 이방인 취급을 받는 것은 받아들일 수 있었다. 하지만 나의 만주족 친구까지 이방인으로 여겨진다는 사실이, 또 심지어는 나보다도 못한 대우를 받고 있었던 사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웠다. 나는 이때부터 ‘집단의 일원으로 인정받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내 스스로에게 끊임없이 던져왔다. 그러다가 전교의 선생과 학생들이 모여 중국의 국가 탄생일(국경절)을 기념하던 자리에서 나는 내 만주족 친구가 홍성기 앞에서 조국에 대한 충성을 맹세하는 것을 보고, 충성을 맹세할 필요가 전혀 없는 나와 그의 처지가 같지 않다는 것을 체감했습니다. 당시 나는 평소에 뻘히 나와 같은 처지로 동등한 대우를 받지 못하던 그가 국기 앞에서 “중국인으로서 영광”을 외치는지 모습이 이해되면서도 마음이 무거웠다.

민족주의에서 내가 가장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은 광적인 수준의 애국심도, 순수 혈통의 추구도 아니다. 바로 같은 집단 내에서 대우받지 못하며 억눌린 채 살아가는 소수의 사람들이 아이러니하게도 그들을 배척하는 공동체의 일부로서 여전히 자긍심을 갖는다는 점이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그들의 이해할 수 없는 신념이 생존을 위해 학습된 것일지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과거 사람들은 민족주의와 순수 혈통주의를 원칙으로 삼으며 수많은 민족국가를 건설했다. 민족주의와 순수 혈통주의의 호소력은 확실히 놀라웠으며 집단의 자긍심을 높이고, 힘을 모으는 구심력 역할을 하기도 했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그들이 제시하는 조건에 부합되지 못한 사람들에 대한 차별과 혐오가 생겨났다. 그들은 상상의 공동체의 피해자들이었고 부당함 속에 살았지만 소속된 집단의 ‘소수’라는 이유로 부당함에 대해 언급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2차 피해를 받았다. 중국에서의 소수민족들도 상상의 공동체의 피해자이다. 그들도 이를 뱉속까지 느끼고 인식하고 있기에 소수민족은 대다수의 공감대에 맞춰 자신의 신분을 버리고 ‘다수’에게 충성하는 것을 선택할 때가 많다. 재일 한인들이 일본에서 나고 자랐음에도 일본 극우파로부터 ‘당신은 한국인이니 한국으로 돌아가’라는 외면을 받고 반발하면 ‘그러니 돌아가’라는 어처구니없는 처우를 당하는 것만 봐도 알 수 있다. 끝없는 상상의 공동체 속에서 누구라도 혈통, 인종, 국적 어느 한 조건이 걸려된다면 그 누군가는 곧 집단의 이방인이 된다.

물론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다. 한국에서도 동포와 이방인에 대한 소리 없는 배척이 이어져오고 있다. 진취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사람들이 한뜻을 모으는 것은 좋지만 그 수단이 민족주의 혹은 순수 혈통주의가 되면 안된다. 민족주의를 연구하는 많은 학자들은 민족주의의 특징에 대해 “실제 집단 내 사람들 간의 뚜렷한 공통점이 있다기보다는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그렇게 믿는 것”에 가깝다고 말한다. 이런 측면에서 민족주의는 종교와 다름없다고 생각한다.

나는 민족주의가 극에 달한 인종주의와 불필요한 배타주의를 직접 경험한 바로서 이와 같은 배척은 어떤 형태로도 존재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이미 분단된 한반도에서 살아가는 우리가 또 그 속에서 순수 혈통을 나누고 이방인을 배척하는 태도를 갖는 것은 비인류적이며 소모적이다. 우리는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모든 사람 하나하나를 더 너그러이 껴안아야 한다. 우리가 원해도 혹은 원하지 않아도 다민족 사회는 앞으로 세계의 추세이며 우리가 살아갈 현재이며 미래이다. 나는 대한민국도 머지않아 다양한 민족을 포용하는 위대한 나라가 될 것이라고 믿는다.

## 讨论文

二戰前，蘇聯為了鎮壓日帝間諜強制流配了超過17萬名朝鮮族同胞，從俄羅斯遠東移居中亞。難以適應原本無人居住的乾旱新環境，造成超過四萬名同胞死亡；日帝強占時期為了建設滿洲國，強迫近百萬同胞遷移到中國東北成為次等勞動者，領著遠低於日本人的薪資甚至幫助日帝侵略；韓國戰爭時成千上萬的家庭流離失所，戰後成千上萬的韓國孤兒後代在美國等地僑居……

全世界各地不論是流散、移民、難民而散居全球的韓民族，用著各種不同的方式持續以「我們民族」的身份認同活著。儘管曾被壓迫、被戰火凌虐，大韓民國歷史上依然會有許多不同國籍的「在外同胞」為了國家的獨立、民主、經濟產業做出卓越的貢獻過。然而明明分屬不同的國籍，為什麼僑胞們依然願意為了大韓民國捨身奉獻？許多僑胞甚至從出生到長大不曾踏上韓半島的土地，卻依然對著韓語、韓民族有著深深的認可與自豪感。我想不論是因為血統、語言或者文化這大概就是因為有「歸屬感」，而自然產生在所有同胞心內的「祖國想像」吧！

然而在21世紀的今天，誠如김종대先生提到這個全世界有1/7人類是移民的地球村社會中，這樣自然的祖國想像是否也有可能成為大韓民國與世界接軌的高牆呢？

「我們必須承認，大韓民國早就已經不是一個單一民族的社會了。」

我認為，在我們因為韓民族自豪的團結與全球同胞創造出屬於大韓民國的民主、經濟、文化奇蹟的同時，除了看見這民族團結表面的光鮮亮麗外，更該注意到的是在大韓民國居住的「他者們」。

幾乎每二十年，大韓民國就會創造出一個奇蹟。

1960年代開始發展五年經濟計畫，到1980年以「漢江奇蹟」擠身亞洲四小龍的大韓民國；1970年末期還處於獨裁政體，卻在1990年代末便抗爭成功民主化的「政治奇蹟」；1973年開始推動北方政策而在1992年完全落實，與北邊兩個共產國家建立了良好關係的「外交奇蹟」；最後是2000年開始由金大中政府果斷投資文化產業，讓K-POP的「韓流奇蹟」在近20年內風靡全球。

但，這些屬於韓民族的奇蹟背後，我們卻常忽略了與我們共患難的那些「非韓國人」們，又

或者「外國人」們。我們對在菜市場、工廠裡做著韓國人不願意做的骯髒工作的「中國朝鮮族」嗤之以鼻視他們為騙子、小偷；我們的媒體在新冠肺炎疫情時，將疫情散播的責任怪罪到在梨泰院出沒的那些在韓外國人身上，卻對違反防疫規定的韓國人視而不見；我們反對國籍法修法讓在韓國出生長大的中國華僑更容易入籍韓國，一個月內便在青瓦台出現超過30萬的請願拒絕這些在韓半島生活上百年數代的外族人入籍韓國……

我們卻不知道，許多韓國的第一級產業靠著中國朝鮮族支撐勞力與粗活、外國人在韓國工作為韓國經濟做出貢獻，外國資本在韓國投資佔韓國股市持比長期超過3成、炸醬麵與炒碼麵這些我們認為是文化特色每天吃著的食物，連中國都找不到只在韓國有的「中華料理」都是在韓華僑的發明……

在2021的現在，我還不確定這二十年我們民族還能再創造出什麼奇蹟嗎？又面臨著日新月異的地球村我們還能靠著「民族團結」發展到什麼程度？

「但我很肯定地說，大韓民國里史上的所有奇蹟都不只是『我們民族』的功勞。」

21世紀的今天有太多的挑戰是屬於全人類必須共同面對，金融海嘯、全球疫情、跨國犯罪與戰火都是在沒辦法區分「你」與「我」情況下，不同群體必須不分你我才可能解決這般的全球性問題。但，此時此刻依然有著「同胞與非同胞」、「我族與外族」想法的大韓民國辦得到成為全球一份子的任務嗎？

過去，我們用語言、文化、血統來證明自己屬於哪個國家或民族，要先有了「祖國」或「身份」才真正成為了一個「人」。

現在，為了面向未來世界所出現的挑戰，大韓民國必須拋棄過去對單一民族的美好想像，開始學會平等的視所有人都「先是人，才能成為某個國家的人」。直到那一刻，真正能夠將國內外所有人平等視之的大韓民國，才可能真正成為21世紀地球公民社會的一份子。

我曾在華留學超過十年，所說的中文自然也有著當地的口音。然而在中國時即便我說著如母語流暢的中文、熟悉當地文化，韓國人的身份卻讓我終究只是一個「外來人」。起初我以為這是專屬於外國人的待遇，直到我認識了有著「滿族」身份的中國人在班上也受到和我一樣被當作「外人」的待遇以後。我才發現，群體的想像界線從來不是國籍、語言甚至文化，而是更加純粹的「想像」罷了。



本尼迪克特·安德森在《想像的共同體》書中提到「儘管在每個民族內部可能存在普遍的不平等及剝削，民族總是被想像成一個深刻的、平等的同志情誼。最終，正是這種友愛關係在過去兩個世紀中，驅使數以百萬計的人們甘願為民族，去屠殺或從容赴死。」

我後來與那位「滿族」的同學成為了好友，縱然在言行與外表上與大部分的同學相去並不遠，甚至還比國際學校裡的其他膚色同學與大家相似許多。但我們倆卻從未真正被「群體」所接納，更多時候我們與黑人、白人在學校所受的待遇無異得被當作外人。

一開始這樣的界線是不被我倆所理解的，或許我與中國同學有著根本上血統與身份認同的不同，但同屬中國籍的滿族朋友卻未受到比我更好的待遇。究竟要被視為群體的一員的條件究竟是什麼？我思考許久依然沒有一個最適切的答案。然而，卻在某一次全校師生集合慶祝「國慶」時，我才真正發現不需要在國旗面前宣示效忠的我與那位滿族同學的不同。

為什麼平日明明受著與我同樣不待見的他，卻在國旗面前慷慨激昂以「身為中國人為榮」呢？

明明平常漢人同學犯錯，同學會說「OOO做錯事了。」我和他卻是「那個韓國人又怎樣了。」、「那個滿人如何如何了。」民族主義最讓我不能理解的部分並非瘋狂的愛國以及血統上的定義，而是同民族內被欺壓的少數族群依然以身為共同體的部分為傲。我開始慢慢發現，只要在這無邊無界的民族想像中缺少了血統、種族、國籍任何一項條件，你便可能是群體的他者。

過去，靠著民族主義人們建立起無數的民族國家，韓民族也不例外時至今日也用著民族知名創造出了K-Pop韓流文化、拿著民族大義的旗幟要統一韓半島。但在民族主義的情懷之下，各國總是將最大多人所具有的共同特色如血統、文化甚至只要是國民都擁有的國籍視作辨認「你」、「我」的標籤。

民族的號召力確實驚人，但背後被劃分出來的少數人卻常成為這場集體想像中的受害者。並非僅是說少數族群因為特色性質不同便被排除在外，而是更多時候為了迎合大多數人的認同他們選擇拋棄自己的身份而選擇效忠「民族」。明明出生長大在母國，卻因為天生所有的不同屬性而被強制劃分在外。這與在日韓人明明出生長大皆在日本，卻被自認真正日本人的日本極右翼排斥要求滾回韓國一樣愚蠢。

凝聚國家或達成政治目的都不該僅僅盲目的民族想像，許多研究民族主義的學者都指出民

族的構成在許多時候更類似於「人們相信什麼是共同的，而非事實上真正的共通點。」大韓民國既非政教合一更非有唯一真神的國家，那我們又怎能靠著在學術上幾乎與宗教相去無幾的民族主義撐起像「國家統一」、「文化宣傳」這些重要的使命呢？

民族主義極端化後的種族主義和不必要的排外主義，是我親身經歷後所了解不應該以任何形式存在於國家內的邏輯。韓半島分裂的今天，我們必須用更寬容的態度擁抱每一個居住在韓半島上的人民。多民族社會是未來世界的趨勢，我也相信在不久的未來大韓民國也將成為多元包容不同族群的偉大國家。

## 토론문

### 김리향(서울대학교 사회학과 석사 수료)

오늘 포럼의 주제는 ‘평화’와 ‘공생’인데 ‘평화’에 대해서는 두 분 발표자께서 충분히 다루셨으니 저는 ‘공생’에 대해 조금 더 토론해보고자 합니다.

1. 김종대 선생님께서는 세계시민 정신은 보편성에 근거를 두고 있기 때문에 ‘평화’라는 보편적인 주제가 문제의 해법으로 가능하다고 하셨습니다. 또한 세계시민 정신의 첫 번째 요소가 “인류애를 바탕으로 상대를 나와 동일한 인간으로 존중하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인간관계를 1:1로 환원하여 볼 때, 상대를 나와 똑같은 인간으로 존중하는 것은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난민문제, 디아스포라 문제는 개인 대 개인의 문제가 아닌, 국가와 개인, 또는 한 집단과 다른 한 집단의 문제가 됩니다. 스케일이 커질수록 그 속에는 다양한 이해관계가 내포되기 마련이고, 집단 내부의 이질성을 조화시키는 작업도 무척 복잡해집니다.

이런 면에서 볼 때, 한반도의 평화 내지는 통일 역시 이질성의 간극을 극복하여야 할 일입니다. ‘남’과 ‘북’의 화해는 정권의 화해이지만 평화롭게 사는 몫은 남쪽과 북쪽에 사는 매 한 명의 개인에게 돌아갑니다. 이들의 목소리가 ‘화해’라는 단어만으로 대변될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들 중에는 전쟁을 겪지 않은 사람이 겪은 사람보다 더 많습니다. 따라서 정작 통일을 생각할 때 이들이 걱정하는 문제는 ‘화해’의 문제가 아닌 ‘공생’의 문제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세계시민 정신’은 이러한 이질성과 관련하여 나아가 화해 이후의 ‘공생’에 대해서는 어떤 해법을 제시할 수 있는지요?

2. 박동찬 선생님께서는 “반전(反轉)에 가까운 변화는 당사자인 이주민 사회 내부의 냉철한 각성과 더불어 한국사회의 과감한 인식 전환을 요구하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한국 사회의 과감한 인식 변화에 대해서는 글에서 언급하셨고 저도 동의합니다. 그렇다면 이주민 사회는 어떤 각성, 또는 무엇에 대한 각성을 필요로 할까요?

지난 해 제가 들은 한 수업에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같이 수업을 듣는 학생 가운데서 영화를 분석대상으로 졸업논문을 쓰는 분이 계셨습니다. 그 분이 다루는

영화는 ‘청년경찰’도 포함이 되었습니다. 그 분의 발표를 듣고 제가 조금은 격앙된 말투로 “과연 영화 한 편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그 사회를 얼마나 반영할 수 있을까요?”라고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런데 그 분은 대답대신 다른 질문을 저에게 던지셨습니다. “미국의 폭력영화를 보면 대개 이탈리아, 멕시코 등 지역의 사람들을 잔인한 폭력배로 묘사를 하는데, 이탈리아나 멕시코 이주민들은 그것에 대해 화를 내거나 시위를 하면서 영화를 내리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조선족 사회는 영화를 가지고 그렇게 화를 내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 질문을 듣는 순간 당사자가 아니면 그 아픔을 공감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드는 한 편, 조선족 사회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다소 부끄럽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였습니다.

이 사례는 저로 하여금 한국사회와 마찬가지로 우리 조선족 사회도 감성적으로 지나치게 민감해하는 경향이 있음을 알게 만들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억울함, 부당함을 당하면 화납니다. 또한 ‘차별’에 대한 항의 내지는 ‘평등’에 대한 요구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동시에 조선족 사회는 자신들을 향하는 곱지 않은 시선을 인식한다 하더라도 보다 냉정하고 객관적으로 대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우리 조선족 사회만 놓고 보더라도 재한 조선족 사회가 90년대를 살아왔던 모습과 지금의 모습이 과연 얼마나 달라졌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 조선족 사회가 한국에서 평화롭게 살아가기 위해서 ‘차별’에 대한 ‘평등’을 외치는 만큼 철저한 자아반성과 각성 나아가 행동에 옮기는 실천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한국사회의 시민으로 융화하기 위한 노력이 그만큼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